

2030 외국인 청년의 감각 경험을 통해 본 다문화 도시 공공공간 인식 연구

부산·경남 지역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Sensory Experiences and Public Space Perception among Foreign Young Adults

A Survey in the Busan-Gyeongnam Region

주 저 자 : 박선영 (Park, SeonYeong)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시각디자인전공 석사과정

교 신 저 자 : 정의태 (Jung, Euitay) 한양대학교 ERICA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교수
junget@hanyang.ac.kr

<https://doi.org/10.46248/kids.2026.2.189>

접수일 2026. 06. 02. / 심사완료일 2026. 06. 04. / 게재확정일 2026. 06. 08. / 게재일 2026. 06. 30.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foreign young adults in their 20s and 30s perceive public spaces through sensory experiences. Based on 46 valid survey responses from foreign young adults living in Busan and Gyeongnam, this study analyzes sensory discomfort related to light, sound, smell, touch, and interpersonal distance. The findings show that sensory discomfort affects spatial behavior, including shortened stays, movement to other spaces, sensory blocking, and avoidance of revisiting. Smell and visual elements appeared as major sources of discomfort, while sound and tactile conditions also influenced the sense of comfort in transportation spaces, cafés, libraries, and parks. Therefore, public design in multicultural cities should move beyond the average-user model and consider sensory strategies such as reducing glare, controlling smell diffusion, providing low-noise areas, and improving tactile comfort.

Keyword

Sensory Experience(감각 경험), Public Space(공공공간), Multicultural city(다문화 도시)

요약

본 연구는 부산·김해에 거주하는 2030세대 외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공간에서의 감각적 경험을 분석하고 다문화 도시의 공공디자인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외국인 청년 46명을 대상으로 한영 병기 방식의 설문을 통해 유효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시각·청각·후각·촉각 및 대인 거리감을 포함한 다감각적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후각과 시각 요소가 공공공간 이용에 있어 주요 불편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각 및 촉각 조건 또한 공간의 체류감과 안정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감각적 불편이 단순한 개인적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 시간 단축·타 공간으로의 이동·감각 차단 행동·재방문 회피 등 실제 공간 이용 행태의 변화로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도시의 공공공간은 평균적 사용자 기준에서 탈피하여 눈부심 완화·냄새 확산 조절·저소음 구역 확보·촉각적 편의성 개선 등 감각적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설계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을 제안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감각, 문화, 공공공간의 교차점

- 2-1. 감각과 문화의 관계
- 2-2. 감각과 공공공간 경험
- 2-3. 다문화 사회와 감각적 공공성

3.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기준

- 3-1. 조사 대상 및 문항 구성

3-2. 감각 요소와 공간 유형

3-3. 분석틀 및 분석 절차

4. 2030 외국인 청년의 감각 경험 분석

- 4-1. 감각 요소별 불편 경험
- 4-2. 공간 유형별 감각 경험
- 4-3. 감각 불편과 공간 이용 행태

5. 감각 기반 공공디자인 방향

- 5-1. 시각, 후각 자극의 조절
- 5-2. 청각, 촉각 자극의 조절
- 5-3. 다문화적 감각 감수성을 반영한 설계 전략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동일한 공간에서도 사용자가 경험하는 감각은 결코 균일하지 않다. 같은 조도 아래 누군가는 눈부심을 호소하고 같은 밀도의 거리에서 누군가는 익숙한 일상을 발견한다. 감각은 개인의 신체에 축적된 문화적 경험의 산물이며 공공공간은 그러한 이질적 감각들이 중첩되는 사회적 장이다. 한국 사회는 최근 다문화 구성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단일한 감각 기준으로 공간을 구성하기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외국인 유학생과 장기 체류자가 일상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에서 서로 다른 감각적 경험이 충돌하거나 병존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공간의 설계 논리는 여전히 평균적 사용자를 전제한 수치 기준에 머물러 있다. 감각적 다양성은 개인적 특성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설계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공공간을 어떻게 상이하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를 감각의 층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특정 민족 집단의 거주 공간이 아니라 대학 캠퍼스·공유 라운지·공공 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편적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다문화화 이방성의 문제로 고정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미 일상 속에 스며든 문화적 다양성이 공간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근접하게 관찰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조도·음향·냄새·온도·시선·거리감 등 감각 요소를 중심으로 경험의 패턴을 추적하고 문화적 차이가 공간 이용 행태에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그간 공공공간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어 온 감각의 문화적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및 공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감각적 다양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감각·문화·공간을 연결 짓는 이론적 접점을 모색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감각의 공존이 가능한 장으로 재구성하는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공공공간은 제도적 의미의 공유 소유 공간에 한정되지 않으며 외국인 청년이 일상적으로 접

근하고 체류하며 타인과 함께 이용하는 개방적·반개방적 생활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카페·공유 라운지·도서관·공공기관·공원·광장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카페는 사적 상업 공간으로 분류되지만 외국인 청년에게 학습·대화·휴식·대가·사회적 만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반공공적 생활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에 포함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감각과 문화의 관계 및 감각적 공간 경험과 다문화 사회의 공공공간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후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2030세대 외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각·청각·후각·촉각 및 대인 거리감에 관한 감각 경험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문항은 감각 요소별 불편 경험과 공간 유형별 감각 반응 및 감각적 불편 이후의 행동 변화와 공공디자인 개선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수집된 응답 가운데 연구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유효 응답을 중심으로 빈도 분석과 주관식 응답의 내용 분류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객관식 응답에 대한 빈도 분석과 주관식 응답의 내용 분류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객관식 응답을 통해 감각 요소별 불편 경험과 공간 유형별 경향을 파악한 뒤, 주관식 응답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을 기준으로 냄새 회피, 시각 피로, 소음 부담, 체류 불편, 거리감 부담 등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제한된 표본을 바탕으로 진행한 탐색적 설문이기 때문에 통계적 일반화보다 외국인 청년의 감각 경험이 공공공간 인식과 이용 행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 이론적 배경

현대 사회에서 공간은 물리적 경계를 넘어 삶을 구성하는 감각적 장면들로 확장되고 있다. 시각 중심의 공간 인식에서 벗어나 청각·후각·촉각에 이르는 다양한 감각은 공간을 해석하는 주체의 조건으로 작동하며 이러한 감각은 개인이 속한 문화적 배경과 긴밀하게 맞물려 형성된다. 따라서 특정한 공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구조나 재료에 대한 분석을 넘어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문화적 감각을 읽는 작업이 요

구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감각·문화·공간이라는 세 축이 어떻게 연결되고 교차하는지를 세 갈래로 나누어 고찰한다.

2-1. 감각과 문화의 관계

감각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사회적인 것이다. 어떤 공간이 편안하다고 느껴질 때 그 감각은 과연 온전히 개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온도와 조명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게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온다. 인간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문화 속에서 감각을 익히며 살아간다. 따라서 감각은 본능 이전에 훈련이고 느낌이기 이전에 해석이다.

감각은 생물학적 자극에 대한 단순 반응보다는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규범이 반영된 결과다.¹⁾ 어떤 사회는 시각을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또 어떤 사회는 촉각이나 후각을 더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여긴다. 이처럼 감각은 세계관을 드러내는 방식이자 문화를 매개하는 감정적 질서다. 청각을 통해 질서를 배우고 냄새를 통해 공동체를 구분하며 피부로 낯섦을 감지한다. 감각은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 그 자체이고 인간은 감각을 통해 사회와 다시 관계 맺는다. 감각은 한 사회의 언어이며 질서이고 기억이다.²⁾ 감각의 문화적 구성은 다양한 인류학적·사회학적 논의 속에서 이론화되었다. 감각민족지학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감각을 통한 문화 인식과 실천을 분석하는 관점으로 등장했다. 감각은 더 이상 보편적인 인식의 틀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훈련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문화적 위계 안에서 어떤 감각이 중심에 놓이고 어떤 감각이 주변화되는 가는 공간 구조에 반영된다. 시각 중심의 문화에서는 거리의 배치 표지판 광고 등이 시각적으로 설계되지만, 청각 중심의 문화에서는 소리의 크기나 높낮이 침묵의 길이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일상 속 공간 경험에서 감각을 통해 겪는 우선순위와 불편함이 서로 다르게 형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감각민족지학을 직접적인 현장 조사 방법으로 적용하기보다 감각이 문화적으로 구성된

다는 관점을 이론적 배경으로 참고한다. 실제 분석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빈도 분석과 주관식 응답 내용 분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감각민족지학은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청년의 공공공간 경험을 다감각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참조점으로 사용한다.

2-2. 감각과 공공공간 경험

도시공간은 더 이상 단지 시각에 의해 지배되는 무대가 아니다. 현대의 공간은 오감을 향해 다층적으로 열려 있으며 그 안에서 감각은 공간을 해석하고 기억하는 중심 도구로 작동한다. 인간은 공간을 걷고 만지고 소리를 듣고 공기의 움직임을 느끼며 그 안에 존재한다. 이때의 감각은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수용이 아니라 공간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참여적 요소다. 공간 경험은 결국 신체를 통해 감각되고 감각은 그 공간의 성격을 구조화한다.³⁾ 시각 외 감각을 중심에 둔 공간 실험은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화한다. 청각과 촉각이 중심이 된 박물관 공간은 단지 시각 정보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용자에게 전혀 다른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바닥 재질의 미세한 차이 손끝에 닿는 온도 공간 속 울림이 만드는 시간의 흐름 같은 감각들은 공간의 구조를 다르게 해석하게 만든다. 감각은 움직임을 유도하고 감정을 환기시키며 기억을 조직한다. 공간은 감각의 언어로 다시 쓰인다.⁴⁾

촉지적 공간 개념은 이러한 다감각적 공간 구성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시각 중심의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신체가 반응하고 머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감각의 흐름이 중요해진다. 공간은 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감각을 통해 매 순간 재구성되는 관계의 장이 된다. 후각은 익숙함을 소리는 안전함을 촉각은 경계를 만들 어낸다. 이 모든 감각이 엮이면서 공간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경험 그 자체로 드러난다.⁵⁾ 따라서 공공공

1) David Howes, 『Sensual Relations: Engaging the Senses in Culture and Social Theor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pp4-7

2) 이수유, '자아, 문화, 감각: 의례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Vol.24 No.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02, pp233-258

3) 이경진, '현상학적 신체 경험에 의한 미디어 공간과 상호감각 : 메트로-폰터의 정위와 깊이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8 No.1, 2019. 02, pp3-10

4) 김이홍 외, '인지감각을 고려한 시각장애인 박물관 공간경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5 No.8, 2020, pp378-386

5) 서보람, '질 들뢰즈의 감각론을 통한 촉지적 공간의 감성적 특성 연구', 호서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감각 조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도시의 공공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용자가 같은 장소를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명, 소리, 냄새, 재료, 거리감과 같은 감각 요소는 공간의 접근성, 체류성, 안정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3. 다문화 사회와 감각적 공공성

다문화 사회의 공간은 언제나 함께 살아간다는 이상과 경계를 만든다는 현실 사이에서 요동친다. 도시 안의 한 골목이 낯선 언어와 음식 냄새로 가득해질 때 그것은 다양한 삶이 동시에 존재하는 흔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용한 경계선이기도 하다. 낯선은 익숙함의 바깥에서 발생하고 그 경계는 공간에 먼저 그어진다. 사람들은 다름을 문화로 받아들이기보다 거리와 조명의 온도 가게의 간판과 벽화의 색으로 먼저 인식한다.

기존 다문화 공간 연구는 다문화 공간이 종종 포용보다는 배제와 통제를 통해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주민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와 열악한 생활환경이 집중되며 이는 곧 공공 인식 속에서 위험하거나 불편한 공간으로 낙인찍히는 구조를 형성한다.⁶⁾ 서울 대림동에 형성된 조선족 밀집 지역은 이러한 이중적 맥락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공간이다. 한편으로는 차이나타운 이국적인 골목이라는 관광적 이미지가 부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위생 치안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 감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행정적 시선은 이 지역의 문화를 유산으로 보존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공공질서라는 이름으로 일상의 자율성을 억제하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그 결과 다문화 공간은 문화의 장소이자 통제의 대상으로서 이중적 감각 경험을 수반한다. 광주 월곡동 고려인 마을의 사례는 다문화 공간이 관광 담론에 편입되며 변화해 가는 또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이 지역은 고려인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주 커뮤니티였으나 최근에는 구청과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문화 관광화를 시도하며 이국적 마을 문화 거리 등의 이미지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는 감각적으로 낯선 거리의 냄새와 색채 언어를 볼거리로 탈바꿈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이주민 커뮤니티의 자율성과 감각적 정체성을 소거할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⁷⁾

6) 박인권 외, ‘도시에서의 정의와 포용의 문제 / 한국의 다문화전환과 이주민의 공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Vol75, 2025. 03, pp86-101

7) 조주현, ‘관광 담론 등장으로 변화하는 다문화 공간:

이러한 공간들은 다문화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차이를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식문화가 공공공간의 감각 질서에 불협화음을 낼 때 그 공간은 곧 이질적인 것으로 전환되며 물리적 경계를 갖지 않더라도 사회적 감각적 경계가 생긴다. 단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공존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감각 체계들이 충돌하거나 침묵하며 평행선으로 흘러갈 때 감각은 가장 정직하게 불균형을 드러내는 언어가 된다. 도시 내의 포용적 공간 전략은 그래서 물리적 구조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단순한 통로 개방이나 시설 확보를 넘어서 그 안의 감각이 존중되고 공명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가령 빛의 밝기 안내문의 언어 거리 소음의 처리 등 일상의 작고 반복적인 요소들은 특정 문화권에는 익숙한 것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낯선 경험이 된다. 다문화적 공공공간이란 결국 이 차이를 숨기거나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드러내고 그것을 감각의 층위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기준

3-1. 조사 대상 및 문항 구성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2030 외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공간에서의 감각 경험과 공간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외국인 청년이 한국의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사람 간 거리감 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감각 경험이 공간 이용 방식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일정 기간 이상 체류 경험이 있는 2030 외국인 청년이며 총 46부의 유효 응답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기본 특성, 공공공간에서 불편하게 느낀 감각 요소, 공간 유형별 감각 경험, 감각적 불편 이후의 행동 변화, 공공디자인 개선 요구로 구성하였다. 감각 요소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거리감으로 구분하였고 분석 대상 공간은 교통공간, 카페, 도서관, 공원 및 광장으로 설정하였다. 문항은 객관식, 복수 응답, 5점 척도, 주관식 문항을 함께 사용하여 정량적 경향과 구체적 경험 서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은 정량적 수치

광주 고려인마을을 사례로’, 대학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4. 06, p77

도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외국인 청년이 공공공간을 감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객관식 응답으로는 감각 요소별 불편 경험 여부와 공간 유형별 주요 감각 반응을 파악하고 주관식으로는 응답자가 실제로 경험한 공간의 구체적인 공간 경험과 불편을 느낀 감각, 이후의 행동 변화를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구성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은 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하나 주관식 응답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을 기준으로 내용 범주를 도출하였다.

[표 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2030 외국인 청년 공공공간 감각 경험 및 공간 인식 분석
조사 대상	부산·경남 거주 또는 경험이 있는 2030 외국인 청년
유효 응답 수	46부
주요 조사 내용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거리감에 대한 감각 경험
분석 대상 공간	교통공간, 카페, 도서관, 공공기관, 공원, 광장
분석 방법	빈도 분석, 주관식 응답 내용 분류, 공공디자인 시사점 도출

3-2. 감각 요소와 공간 유형

분석 기준은 감각 요소와 공간 유형으로 구분된다. 감각 요소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사람 간 거리감으로 설정하였다. 시각은 조명, 색채, 간판, 안내 정보, 시선 등을 포함하며 청각은 대화 소리, 음악, 안내방송, 생활 소음 등을 포함한다. 후각은 음식 냄새, 담배 냄새, 향수, 실내 냄새, 공공화장실 냄새 등을 포함하며 촉각은 의자와 바닥의 재질, 온도, 신체 접촉감 등을 의미한다. 사람 간 거리감은 좌석 간격, 보행 중 타인과의 거리, 밀집도 등 신체적, 심리적 간격에 대한 감각으로 보았다. 공간 유형은 외국인 청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간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본 연구에서 공공공간은 제도적 의미의 소유 공간에 한정되지 않으며 카페 및 공유라운지, 도서관 및 공공기관, 공원 및 광장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감각 요소별 불편 경험, 공간 유형별 감각 반응, 감각적 불편 이후의 행동 변화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본다.

[표 2] 분석 기준

감각	분석 요소	주요 내용
시각	조명, 간판, 색채, 안내 정보	밝기, 시각 정보 밀도, 색채 자극
청각	음악, 말소리, 안내방송, 소음	소리 크기, 지속성, 중첩, 정적의 부족
후각	음식, 담배, 쓰레기 냄새	냄새 강도, 확산, 낮섬
촉각	의자, 바닥, 재료, 온도	차가움, 딱딱함, 체류감
거리감	좌석 간격, 거리, 밀집도	심리적 압박, 긴장감, 공간 선택

3-3. 분석틀 및 분석 절차

감각 경험을 개인의 선호나 취향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과 공간 환경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공공공간 인식의 요소로 파악하였다. 이에 문화적 감각 배경 → 감각 요소의 인식 → 공공공간에서의 불편 경험 → 공간 이용 행태의 변화 → 공공디자인 시사점의 흐름으로 구성하였다. 문화적 감각 배경은 응답자가 자라온 환경 속 형성된 감각에 대한 익숙함의 차이이다. 이 차이는 공공공간에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거리감에 대한 감각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감각적 불편은 체류 시간 단축, 타 공간으로의 이동, 이어폰이나 마스크를 통한 감각 차단, 재방문 회피와 같은 공간 이용 행태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 변화는 공간이 다양한 감각 기준을 가진 사용자에게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공디자인 시사점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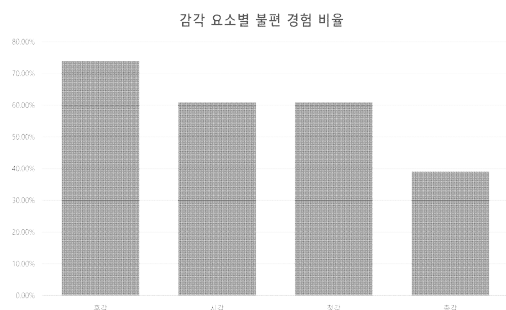
따라서 이 분석은 단순히 어떤 감각이 불편했는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불편이 공간의 체류성, 접근성, 안정감, 재방문 의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4. 2030 외국인 청년의 감각 경험 분석

4-1. 감각 요소별 불편 경험

설문 결과 외국인 청년 응답자들은 한국의 공공공간에서 후각과 시각 요소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냄새 때문에 특정 공간을 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유효 응답 중 73.9%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이 언급한 주요 후각적 불편 요소는 음식 냄새, 담배 냄새, 술 냄새, 향수, 공 공화장실 냄새 등이었다. 후각적 자극은 단순한 불쾌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간 회피 행동으로 직결되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각적 불편을 경험한 응답자는 60.9%로 나타났다. 야간 거리의 LED 간판, 실내의 강한 백색 조명, 복잡한 색채, 과도한 광고와 안내 정보 등이 시각적 피로의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한국의 공공공간이 외국인 청년에게 때로는 과도한 시각 자극으로 인해 피로감을 주는 공간으로 경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청각적 불편도 같은 비율인 60.9%로 나타났으며 카페의 음악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교통공간의 안내방송, 거리의 소음 등이 겹쳐질 때 공간을 편안하게 느끼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청각적 불편은 소리의 존재 자체보다 소리의 크기, 지속성, 중첩 정도와 관련되어 있었다. 촉각적 불편은 39.1%로 다른 감각 요소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공간의 체류 시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차가운 금속 의자, 딱딱한 플라스틱 좌석, 겨울철 바닥의 냉기, 장시간 앉기 어려운 가구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촉각은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보다 오래 머무는 과정에서 불편이 누적되는 감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후각과 시각은 공간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강하게 작용하며 청각과 촉각은 공간에 머무르는 동안의 안정감과 지속적 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1] 감각 요소별 불편 경험 비율

[표 3] 감각 요소별 주요 불편 경험

감각	주요 불편 내용	사용에 미친 영향
시각	강한 조명, 복잡한 간판, 과한 색채, 많은 정보판	눈의 피로, 체류 시간 감소, 혼잡
청각	큰 음악, 안내방송, 대화, 생활 소음	휴식감 감소, 공간 회피
후각	음식 냄새, 담배, 쓰레기 냄새	재방문 기피, 낮설음 증가

촉각	차가운 의자, 딱딱한 좌석, 불편한 가구	장시간 체류 어려움, 긴장
----	------------------------	----------------

4-2. 공간 유형별 감각 경험

공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각적 불편은 공간의 기능과 이용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통공간에서는 시각과 청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공항,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은 이동과 대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안내판, 전광판, 광고, 안내방송, 사람들의 이동 소리 등이 한꺼번에 경험된다. 외국인 청년에게 이러한 정보의 중첩은 길 찾기를 돕는 기능을 하면서도 동시에 감각적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언어적 정보와 시각 정보가 동시에 제공될 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선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카페 및 공유 라운지는 후각, 청각, 거리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었다. 외국인 청년에게 카페는 학습, 대화, 휴식, 대기, 사회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생활공간이지만 음악 소리, 커피머신 소리, 사람들의 대화, 음식 냄새, 향수, 좌석 간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음악이 크거나 냄새가 강하거나 좌석 간격이 좁을 경우 오래 머물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청각, 시각, 촉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도서관은 조용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일부 외국인 청년에게는 지나치게 조용한 분위기 자체가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장시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만큼 조명의 밝기, 책상과 의자의 재질, 실내 공기의 건조함 등이 체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도서관의 감각적 편안함은 조용함 그 자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함께 갖추어질 때 형성된다.

공원 및 광장에서는 후각, 시각, 촉각이 동시에 작용하였다. 공원은 자연광, 바람, 식물, 흙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공공공간보다 감각적으로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담배 냄새, 쓰레기 냄새, 야간 조명의 부족 또는 과잉, 차갑고 딱딱한 벤치 등은 공원이 가진 감각적 안정감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나타났다. 관리되지 않은 후각 자극이나 불편한 체류 시설이 존재할 경우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원의 감각 환경 관리는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선다. 감각 경험은 공간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따라서 공공공간 설계에서 감각적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모든 공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기능과 이용 행태에 따라 감각 요소를 달리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4-3. 감각 불편과 공간 이용 행태

감각적 불편은 응답자의 공간 이용 행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불편한 감각을 경험했을 때 응답자들은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나오거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이어폰과 마스크 등을 통해 감각 자극을 차단하거나 해당 공간을 다시 방문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 감각적 불편이 단순한 주관적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체류 시간과 재방문 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는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결과다.

후각적 불편은 공간 회피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냄새는 시각이나 청각에 비해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공간 전체의 인상을 빠르게 결정하는 감각이다. 음식 냄새나 담배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는 공간은 외국인 청년에게 오래 머물기 어려운 공간 나아가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시각적 불편은 공간의 혼잡감과 피로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하였다. 밝은 조명과 복잡한 간판 많은 안내 정보는 공간을 활기 있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사용자에게 시각적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청년의 경우 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가 동시에 들어올 때 정보 해석의 부담이 내국인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청각적 불편은 공간의 분위기와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주었다. 큰 음악이나 지속적인 소음은 공간을 감각적으로 긴장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조용한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은 일부 응답자에게 작은 소리까지 의식하게 만드는 또 다른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소리를 줄이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간의 목적에 맞는 소리의 밀도와 선택 가능성을 조절하는 방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촉각적 불편은 장시간 체류와 관련이 깊었다. 의자나 바닥의 재질, 온도, 앉는 자세의 편안함은 그 공간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공공 공간의 체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각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신체가 직접 접촉하는 재료와 가구의 감각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 결과는 시사한다.

[표 4] 감각적 불편 이후 행동 변화

구분	내용	디자인 해석
빠른 이탈	오래 머물지 않고 공간을 벗어남	체류성 저하

공간 이동	더 편안한 다른 공간 선택	공간 간 선택성 발생
감각 차단	이어폰, 마스크 등 사용	공간의 감각 환경 부족
재방문 회피	이후 같은 공간을 피함	장소 선호도 저하
참고 머뭇	불편을 감수하고 이용함	사용자 요구 표현화 x

5. 감각 기반 공공디자인 방향

5-1. 시각, 후각 자극의 조절

설문 결과에서 시각과 후각은 외국인 청년의 공공공간 경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감각 요소로 나타났다. 시각 환경의 개선은 단순히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목적에 따라 빛의 강도와 정보의 밀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공간에서는 이동과 정보 탐색이 핵심 이용 행태인 만큼 안내 정보가 쉽게 인식되도록 표지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안내와 픽토그램을 병행하되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노출하기보다 사용자의 동선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카페나 도서관처럼 체류가 중심이 되는 공간에서는 간접조명을 활용하고 눈부심을 줄이며 장시간 머물러도 피로하지 않은 색온도와 조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이나 업무가 이루어지는 좌석에는 충분한 밝기를 제공하되 휴식이나 대화가 이루어지는 구역에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조명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청년뿐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감각 기반 공공디자인 전략이다. 공원과 광장에서는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을 확보하되 자연적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과도한 밝기와 눈부심을 조절해야 한다. 후각 환경은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냄새의 확산과 체류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음식 냄새, 담배 냄새, 화장실 냄새, 향수 등은 특정 문화권에서는 익숙한 감각일 수 있지만 다른 사용자에게는 낯설거나 불편한 자극으로 경험될 수 있다. 냄새가 원하지 않는 영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환기, 동선, 완충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핵심이다. 카페에서는 음식 냄새가 전체 좌석으로 퍼지지 않도록 환기 계획을 강화하고 공원과 광장에서는 흡연구역과 휴식 공간을 분리하며 교통공간에서는 화장실·음식점·대기 공간의 배치를 조정하여 냄새가 체류 영역에 머물르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5-2. 청각, 촉각 자극의 조절

청각 환경은 공간의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공공공간의 소리는 단순히 시끄럽거나 조용한 것으로만 구분되지 않는다. 같은 소리라도 공간의 목적과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활기, 피로, 긴장, 안정감으로 다르게 읽힌다. 따라서 청각 환경의 개선은 무조건적인 소음 제거가 아니라 소리의 밀도와 선택 가능성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공간에서는 안내방송이 필요하지만, 반복되는 방송과 주변 소음이 중첩될 경우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요 정보와 일반 안내를 구분하고 대기 공간 일부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구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청년에게 카페는 단순한 음료 소비 공간이 아니라 대화, 휴식, 대기, 사회적 만남이 함께 이루어지는 반공공적 생활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카페는 큰 음악과 대화 소리가 중첩되어 휴식이나 집중이 어려운 공간 또는 반대로 과도하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도서관처럼 행동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 양극화된 분위기는 공간의 성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체류 중 감각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카페와 도서관의 감각 설계는 음악, 대화 소리, 좌석 간격, 음식과 향의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체류형 공간에서는 대화가 가능한 구역, 조용히 머무는 구역,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구역을 느슨하게 구분해 각 구역의 조도와 소리 밀도를 다르게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감각 기준을 가진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촉각 환경은 공공공간의 체류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의자, 바닥, 손잡이, 테이블 등 신체가 직접 접촉하는 요소는 공간의 편안함을 결정하는 조건이다. 차갑고 딱딱한 재료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장시간 머무르는 사용자에게는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거리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체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재료의 내구성뿐 아니라 촉각적 편안함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카페, 도서관, 공원 벤치처럼 오래 앉는 공간에서는 체온과 지나치게 대비되는 차가운 재료를 줄이고 신체 지지감이 있는 좌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원에서는 금속이나 석재 벤치만 배치하기보다 목재, 복합재료,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체류형 좌석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도서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장시간 학습과 대기를 고려하여 좌석의 높이, 등받이, 재질, 간격 등을 조정해야 한다.

5-3. 다문화적 감각 감수성을 반영한 설계 전략

다문화적 공공디자인은 특정 문화의 상징물을 공간에 배치하는 방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용자가 같은 공간을 사용할 때 서로 다른 감각 기준이 충돌하지 않도록 공간의 자극 강도와 선택 가능성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청년이 공공공간에서 겪는 불편이 언어 문제나 시설 부족만이 아니라 빛, 냄새, 소리, 재료, 거리감과 같은 일상적 감각 조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공간은 평균적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 설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같은 공간 안에서도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구역, 자연광을 느낄 수 있는 구역, 냄새가 강하지 않은 구역, 혼자 앉을 수 있는 좌석, 대화와 교류가 가능한 좌석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사용자를 문화권별로 분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 상태와 이용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편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다. 선택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공간은 특정 사용자를 배려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유연하게 작동하는 공간이 된다.

결국 감각 기반 공공디자인은 공간을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한 장식적 전략이 아니다. 다양한 감각 조건을 가진 사용자가 공간 안에서 머무르고 이동하고 쉬고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의 실천 방식이다. 다문화 도시의 공공공간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을 넘어서 감각적 차이가 불편이나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되는 생활 기반 공간이어야 한다.

[표 5] 감각 경험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략

감각 경험	공간 문제	디자인 전략
눈부심, 시각 정보 과잉	피로감, 방향 혼란	조도 단계화, 안내 정보 단순화
냄새의 강한 확산	낮설 증가, 재방문 기피	환기 계획, 냄새 완충 구역
소리의 중첩	휴식감 감소, 공간 회피	저소음 구역, 구역별 음향 조절
불편하고 차가운 재료	체류 시간 감소	인간공학적 가구, 따뜻한 재료
목적별 감각 요구 차이	체류 시간 감소, 재방문 회피	대화 집중·휴식·대기 구역 분리

6. 결론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2030 외국인 청년의 공공공간 경험을 감각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문화 도시의 공공디자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사람 간 거리감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청년 응답자들은 후각과 시각 요소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냄새로 인한 공간 회피 경험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강한 조명, 복잡한 간판, 많은 안내 정보 등은 공간의 피로감과 혼잡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청각적 불편은 음악, 안내방송, 대화 소리, 생활 소음 등이 중첩될 때 두드러졌고 공간의 휴식감과 집중도에 영향을 주었다. 촉각적 불편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장시간 체류와 관련하여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공간 유형별로는 교통공간에서 시각·청각 정보의 과밀이 카페와 공유 라운지에서 후각, 청각, 거리감의 중첩이 도서관과 공공기관에서 정숙함과 조명 및 좌석 조건의 영향이 공원과 광장에서 자연 감각과 관리되지 않은 냄새의 충돌이 두드러졌다. 감각 경험이 공간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공공디자인 전략 역시 공간별 특성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다문화 공간 연구가 주로 이주민 밀집 지역, 민족 경관, 제도적 포용, 언어적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일상적인 공공공간에서 발생하는 감각의 차이를 통해 다문화 도시의 공공성을 해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다문화 공공공간의 문제를 언어 안내나 문화적 상징물 배치에 한정하지 않고 조명, 소리, 냄새, 재료, 거리감과 같은 일상적 감각 조건의 문제로 확장했다는 점에 차별점이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의 2030 외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조사라는 점에서 표본의 한계를 가지며 응답자의 출신 지역,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에 따른 감각 반응 차이를 세부적으로 교차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확정적인 공공디자인 기준이라기보다 감각적 다양성을 고려한 공공공간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을 바탕으로 문화권별 감각 반응의 차이를 비교하고 감각 요소를 실제 공간에서 측정하며 사용자 인터뷰 및 현장 관찰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공공디자인 지침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향후 외국인 청년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 문화, 신체 조건을 가진 사용자들을 위한 공공디자인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David Howes, 『Sensual Relations: Engaging the Senses in Culture and Social Theor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2. 김이홍 외, '인지감각을 고려한 시각장애인 박물관 공간경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5 No.8, 2020
3. 이경진, '현상학적 신체 경험에 의한 미디어 공간과 상호감각 : 메트로-폰티의 경위와 깊이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8 No.1, 2019
4. 이수유, '자아, 문화, 감각: 의례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Vol.24 No.1, 2018
5. 박인권 외, '도시에서의 정의와 포용의 문제 / 한국의 다문화전환과 이주민의 공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Vol75, 2025
6. 조주현, '관광 담론 등장으로 변화하는 다문화 공간: 광주 고려인마을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4
7. 반항새, '해외관광객 방문 향상에 미치는 공공공간 이미지 분석: 서울시 주요 관광형상권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
8. 서보람, '질 들뢰즈의 감각론을 통한 축지적 공간의 감성적 특성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9. 수실로 파트리샤 마리스, '공공공간 활성화 전략으로서 도시 트레일 특성과 이용자 만족도의 관계 연구: 서울둘레길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